광주 군공항 이전, 韓美 'COB 포괄협정'으로 푼다

〈공군 공동운영기지〉

국내 5곳 대상 연내 문안 협의 완료 목표

미군 시설 임시배치·공여구역 반환 열려

국방부 "미측과 보수공사 중단 여부 협의"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확보 이전 '속도'

정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llocated Operating Base·COB)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내 5개 COB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작업에 미군 시설의 임시 배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간 포괄협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COB 가운데 한 곳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2021년부터 포괄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다. 최근 광주 군공항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연내 협정 문안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는 기존에 논의해 온 COB 이전 관련 포괄협정에 담는 방안을 미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과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B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공군기지다. 평시에도 미군은 기지 안의 일부 공여구역을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군기지가 COB로 지정돼 있다.

한미 양국은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2021년부터 국내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전 절차와 체계, 기본원칙 등을 담은 포괄협정 마련에 나섰다.

양국 실무진은 2024년 10월 협정 문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2025년 11월 미국 국무부가 회신한 문안을 놓고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근 1년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최근 문구 조정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연내 최종 문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은 광주 기지도 포괄협정안에 넣어 함께 대처하길 바라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며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의견 접근이 이뤄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협정이 체결되면 다른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내 시설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지 안에 있는 미군 시설의 이전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포괄협정에는 COB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 배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협정은 한미 양국 간 조약인 만큼 문안 협의가 끝나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지 내 미군 시설에서는 총사업비 600억원대의 시설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현물지원 사업으로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에 586억원이 투입되며, 엔지니어 저장시설 보수 36억원과 철제 물탱크 보수 13억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국가산단 부지 선정 발표 전에 계획된 보수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0.2%에 불과하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산단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여부 등을 미측과 포괄협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생명존중 캠페인 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주식 팔면 다음날 받는다…결제주기 'T+1일' 도입

2028년 '사흘→이틀' 단축

거래소 등 공동로드맵 공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T+1'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즉 주식 등 증권 매매시 결제 주기를 기존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4개 기관은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장내시장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투자자 결제업무를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8대 분야 22개 과제에 걸쳐 준비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가 실시된다.

거래소 등은 "이 경우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결제주기가 'T+1'으로 전환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8년부터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단축된다면 1972년 T+2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만의 체계 개편이 된다. /연합뉴스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전형 배제 행정소송

전남대 상대 입학전형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조선대도 예정…교육부 등엔 제도 개선 촉구

〈속보〉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본보 10월19일·20일자 1면**)된 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호남삼육중 졸업생 비상대책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이 지난달 26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이 되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갑자기 대입 전형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이라며 "그러나 전남대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서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중학교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야 생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을 전남대가 준용하면서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생이 배제됐고, 학생들은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모집인원 163명 중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역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않은 학교 종류 제한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2개 법령 어디에도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2조 2호의 중학교(일반 중학교)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지방대육성법의 경우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입장이다.

이들 학생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3년을 지역 학교에서 다니면 가능했던 지역인재전형 지원 기준을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6년으로 강화하고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면서 각종학교 배제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무안군 공고 제2026-1297호

물맞이 치유의 숲 관리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2차)

물맞이 치유의 숲 내 방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묘 이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이장(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으로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기수	비고
1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산35-2	임야	무안군	2	

2. 개장사유 : 물맞이 치유의 숲 경관 관리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026. 10. 28. ~ 11. 30.)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이전보상비 및 이전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신고처 : 무안군청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 ☎ 061-450-5592
7.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분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
-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합니다.
- 분묘이장비는 무안군청 산림공원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중·후의 사진과 연고자증명서(족보,호적,제적등본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 등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의 정확한 위치는 군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거나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방문하여 도면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묘의 이전 대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 이 공고에서 누락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내에 소재한 추후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하며, 분묘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무 안 군 수